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정부, 지방소멸 대응 강화해야”

김관영 도지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범위 확대 건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서 지난번 제7회 협력회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제8회 협력회의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돼 논의된 안건은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 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으로 총 5건이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은 정부, 지자체, 지방은행 등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모펀드) 신규 조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펀드를 통해 비수도권의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펀드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동 조성하는 인구활력펀드를 매년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지방에 이주예정인 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104 활용 제안'에서는 현재 국토부 및 농



‘2024 지방시대 엑스포’ 전북자치도 부스 방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진행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북자치도 부스를 방문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식품부로 이원화돼 있는 빈집 관리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실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철거 절차 간소화, 과세제도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됐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안건 토론에서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빈집의 자진정비 유도를 위한 인

센티브 강화와 빈집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등의 추가적인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빈집 문제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한다"라며, "특히,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기금으로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기금 활용 범위 확대

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또한, 기준인건비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김 지사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개선 방안에는 동의하나 패널티 부여를 재정지립도와 자율운영범위를 연계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고, 패널티가 재도입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를 언급하면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의 지속적인 운영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미래를 꽃피우는 전북’

전북자치도, 춘천 개최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3000여개 한지 꽃으로 전통·혁신 가치 담아
고창 웰니스타운 등 활용 치유관광 산업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8일까지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진행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4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6개 중앙부처, 17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행사 자리 잡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엑스포에 '백년대계(百年大計), 미래를 꽃피우는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의 전북 전시관을 설치해 새만금, 농생명 산업 등 전북의 미래 발전 비전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우수 사례인 고창 웰니스타운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산업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전북 전시관의 주요 컨셉은 전면

에 장식된 3,000여 개의 한지 꽃으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지를 통해 전통과 혁신을 담아 백년을 향한 전북의 비전을 향상화,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전시관에는 방문객을 위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전북의 치유관광지와 대표관광지를 살펴보고, 한지꽃과 함께 하는 AR 즉석 사진 촬영을 통해 전북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순간을 남길 수 있다.

더불어 전북 14개 시군의 특산물인 전통주와 간식도 증정돼 전북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전북이 준비하는 백년대계의 비전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전북의 문화유산과 미래지향적 혁신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행사는 정부 부처의 참여가 대폭 확대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춘천커피페스타, 강원바이오펀드, 춘천창업엑스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오늘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ftr.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합창으로 하나 됐다’... 전북교육청 연합합창제

소리문화전당서 개최... 전북교육청합창단 등 11개팀 무대 올라

김제, 완주, 임실, 순창교육지원청 학부모합창단과 전북교육청 교육가족합창단은 매주 갈고닦은 실력으로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였다.

특히 전북교육청 교육가족합창단은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으로 이날 '정령송'과 '두꺼비집'을 노래해 관객

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뮤지컬 길러미의 'Happy AND ing'와 팝페라 남성 4중창 '사과나무'의 초청 공연도 펼쳐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합창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하고, 음악의 기쁨을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2024 전북교육청 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교육청 교육가족합창단과 9개 교육지원청 10개 학부모합창단이 음악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전북 예술포럼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정읍의 맛 상화차

찬바람 불면 정읍 상화차로 건강 챙기세요!

정읍시